

## 꼬마 사다리

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는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키 받침 사다리가 없다. 물론 나는 현관 앞 비밀번호를 쉽게 누를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쉽게 누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키 받침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그 사다리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키가 작아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에 아이들을 위한 ‘꼬마 사다리’가 없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말한 어른들도, 우리도, 한때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너무나도 작은 아이였다. 그러니 우리가 겪었던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꼬마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은 불편해지잖아. 그럼 이건 차별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다.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